

“민선8기 성장 기반 넘어 핵심사업 실행 본격화”



민선9기 취임 100일 윤병대 나주시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민선9기 ‘윤병대’가 출범 100일을 맞았다. 그동안 윤병대 시장은 민선8기에서 확보한 급격한 성장 기반을 실제 산업과 일자리, 관광과 농업소득, 시민의 삶으로 연결하기 위한 실행력을 높였다. 인공태양 연구시설(1조 2000억원)을 비롯해 에너지국가산업단지(3519억원), 국립 나주 에너지전문과학관(460억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105억원) 등 민선8기에서 확보한 대형 프로젝트의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전남광주통합시대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앞으로 나주시는 에너지, 관광, 농생명을 나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3대 성장축으로 키우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도시의 성장판을 넓히는 동시에 민생경제와 교육, 청년, 교통 등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끈다.

△‘글로벌 에너지특별시’로 완성

민선9기 나주의 가장 큰 성장동력은 단연 에너지다. 핵심은 총사업비 1조2000억원 규모의 인공태양 연구시설이다. 시는 핵융합 핵심기술의 연구에서 실증, 산업화로 이어지는 전 주기 생태계를 구축해 나주를 세계적인 미래에너지 연구·산업도시로 성장시킨다는 구상이다.

에너지국가산업단지도 본격적인 조성 단계로 접어들었으며 왕곡면 덕산리 일원 124만㎡에 총사업비 3519억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국가산단에는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그리드, 전력기자재 등 미래 에너지기업을 집적한다.

여기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를 중심으로 ‘K-그리드 인제·창업밸리’를 조성해 대학의 연구성과가 창업으로, 창업이 기업 성장과 지역 일자리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

차세대 전력망 전력기자재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 조성하고 시험·인증 인프라 확충을 통해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과 실증, 사업화도 지원한다.

총사업비 460억원 규모의 국립 나주 에너지전문과학관은 산업 중심의 에너지 인프라에 교육과 과학문화 기능을 더한다.

이 같은 산업·연구 기반과 함께 나주를 세계 에너지 전문가들이 찾는 글로벌 교류 거점으로 키우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30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열린 ‘나주 글로벌 에너지포럼 2026’에는 세계적인 석학과 에너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태양과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핵융합(Fusion), 미래 인제와 혁신(Future), 차세대 전력망(Flexibility) 등 이른바 ‘F3’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시는 글로벌 에너지포럼을 단순한 학술행사를 넘어 인공태양 연구시설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에너지국가산단을 세계적인 연구자, 기업, 투자자와 연결하는 국제교류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글로벌 에너지특별시 나주’의 브랜드와 산업 경쟁력을 함께 높여갈 계획이다.

△영산강정원 54만명 유입…‘머무는 나주’ 관광구체화

관광 분야에서는 영산강을 중심으로 나주의 2000년 역사와 생태·정원 자원을 하나로 잇는 체류

형 관광도시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영산강정원에서 열린 ‘2026 나주영산강축제’에는 54만명이 방문하며 영산강이 전국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나주의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줬다.

민선9기는 이 같은 성과를 일회성 축제 흥행에 머물게 하지 않고 사계절 관광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영산강정원을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2030년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주제정원과 체험시설, 방문자 센터를 확충하는 한편 주변 습지와 수변 생태환경을 함께 복원한다.

KTX 나주역과 영산강정원을 잇는 수변 랜드마크를 조성해 철도를 이용한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들섬·동섬 등 영산강의 생태자원과 연계한 관광동선을 구축한다.

죽산보 둔치 익스트림 스포츠파크와 죽설현 원림(비단원림), 한반도 지형 전망대 등 권역별 관광자원도 영산강 물길을 따라 연결해 생태와 정원, 레저를 함께 즐기는 관광벨트로 확장한다.

2000년 역사도 나주만의 관광 경쟁력으로 키우며 마한 고도 지정과 나주목판아 재현, 천년 역사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금성관과 나주읍성, 나주천 생태물길공원 등 원도심 역사자원에는 야간공원과 체험 콘텐츠를 접목한다.

△햇빛 소득·농산물 부가가치 제고

농생명 분야의 핵심은 ‘농사를 지으면 소득이 되고 농촌에 살면 삶이 나아지는 나주’를 만드는 것이다.

대표 사업인 ‘나주형 햇빛소득마을’은 민선9기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 조감도

출범 직후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동강변 월양1리와 남평을 오계2리는 주민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그 수익을 마을 공동체와 공유하는 새로운 농촌 소득모델 구축에 첫발을 뒀고, 최근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2차 공모에서 8개 마을이 추가로 선정됐다.

기후변화와 가격 변동으로 불안정한 농업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와 농업수입안정보험도 확대하고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민선9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를 이끌고 있는 윤병대 나주시장.



‘나주 글로벌 에너지포럼 2026’이 ‘인공태양과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이날 노벨화학상 수상자 오마르 야기 교수가 기조강연에 나섰다.

한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해 고령화와 인력난에 대응한다.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공과 산업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반도 확충한다.

총사업비 105억원을 투입하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상품성이 떨어지는 농산물과 식품 부산물을 새로운 소재와 제품으로 만드는 푸드업사이클링 산업을 육성한다.

농산물의 생산에서 가공, 실증, 제품화까지 지역에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농가에는 새로운 판로와 소득을, 기업에는 연구와 사업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농촌공간 정비와 귀농귀촌 기반 확충, 친환경 축산환경 조성도 병행해 소득뿐 아니라 생활환경까지 개선된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어간다.

△2차 공공기관 이전…빛가람혁신도시 기능집적

나주시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방침에 맞춰 기존 빛가람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연관 기능을 집적한다는 전략 아래 기관 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를 비롯해 발전5사 통합본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을 주요 유치 대상으로 삼고 에너지, 농생명, 정보통신, 문화예술평가능군과 AI·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을 연계한다.

단순히 기관 몇 곳을 옮겨오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전력을 비롯한 기존 16개 이전공공기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등과 새로 이전하는 기관의 기능을 연결해 빛가람혁신도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 연구, 인제 거점으로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광역버스의 노선 효율화와 정차 정류장 확대를 통해 시민의 출퇴근과 이동 편의를 개선하고 KTX 나주역 일원은 역세권 개발과 복합환승센터 구축을 통해 전남광주 생활권을 실질적으로 하나로 묶는다.

산업과 관광, 주거 기능까지 연계해 나주역이 단순히 열차를 타고 내리는 곳을 넘어 사람과 기업, 소비가 모이는 새로운 도시 거점이 되도록 한다.

△민생·의료·교육·청년 체감 정책 강화

나주시는 민선9기 출범과 함께 시민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 물가 상승으로 커진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통해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한 의료기반 확충도 추진한다.

대학병원 부설 산모·어린이 종합병원 유치 추진을 통해 출산과 소아진료를 보다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 이용과 저상버스 확대를 통해 고령자와 교통약자의 이동권도 강화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연계한 에너지영재교육원 운영을 지원하고 에너지영재 학교 설립을 추진해 나주만의 에너지산업 기반을 미래 인제 양성과 연결한다.

청년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까지 촘촘하게 지원하고 특히 ‘나주청년 100일 책임 보장제’를 통해 미취업 청년의 상황 진단을 통해 취업과 창업, 직업훈련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하는 한편 활력소득과 주거지원을 통해 청년이 지역에서 일하고 생활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힌다.

민선9기 첫 100일은 민선8기에서 확보한 성장의 씨앗을 실제 성과로 키우기 위한 출발점이다.

대형 국책사업과 산업기반은 기업과 일자리로, 영산강과 2000년 역사는 관광객과 지역 소비로, 풍부한 농생명 자원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으로 연결한다.

윤병대 시장은 “민선9기 첫 100일은 민선8기에서 시민과 함께 마련한 나주의 성장 기반을 구체적인 실행과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시간이었다”며 “글로벌 에너지특별시의 기반을 완성하고 영산강과 2000년 역사문화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와 교육, 청년, 민생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도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시민이 변화와 성장을 일상에서 체감하는 ‘나주 대도약’을 완성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한기 기자 pose007@gwangnam.co.kr

